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제자들은 '좋은 땅'(옥토)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거친 물결에 극심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혼돈의 바다를 다스리자, 제자들이 비로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41절). 이 결말이 중요합니다. 새해를 출항한 우리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구간을 지나기도 하고 휘몰아치는 풍랑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으려면, "그가 누구이기에"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물어야 합니다. 나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한해의 여정을 충분히 감당해 낼 것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출항에 나섭시다!

찬　　송 --------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 다 같 이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2. 이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 이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4. 주께서 심판 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길로 가지 맙시다

축복과 비전나눔 ---------- 다 같 이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품은 비전"을 가족들과 나누고, 집안 어른들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줍니다.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5년
설날가정예배

담임목사　이 국 진

주소: 전주시 완산구 신촌1길 11 (중화산동2가)
Tel: 063-716-9559　Fax: 063-716-9558
홈페이지: www.jjvision.org

꿈이 여물어 행복이 꽃피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비전교회 JESUS VISION CHURCH

예 배 순 서

***인도 : 신앙의 세대주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오늘까지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 상 기 도 ---------- 다 같 이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 다 같 이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대 표 기 도 ---------- 가 족 중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고자 결단하게 하시며,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들 모두가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마가복음 4:35-41절(신약 59) ------- 다 같 이

(35)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말 씀 ---------- 예수님을 따라 나섭시다 ---------- 인 도 자

설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을 따라, 출항에 나서길 축복합니다. 출항, 출국, 출정… 뭔가 성큼 출발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출항을 알립니다. 출항 전 낮시간에 예수님은 무얼하셨을까요? 잔잔한 해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바다가 거칠어지기 시작할 때쯤 '출항'을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날따라, '큰 광풍'이 일어나 세찬 물결이 배를 부술 듯이 때렸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찬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자들은 직감합니다. 잘못하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온종일 설교하시느라 지쳐버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잠들어 계십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38절)

부스스 잠이 깬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 잠잠하고 고요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만드신 후에,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40절).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에도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출항 전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제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